



월운 스님에게 듣는 경전이야기 <21·끝>

한결 같은 마음으로 정진하라

(734호에 이어) 1. 먼저 자리 잡기: 벽돌을 제자리에 놓아야 하듯이 자기 자신을 불제자로 만드는 훈련을 쌓아야 한다. 그 방법으로서는 평상시의 생활 속에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불보살님의 명호를 한 번이나 세 번 식만 찾는 공부를 오래 지속하여, 꿈에도 그렇게 하기까지 지속해야 한다.

2. 줄 맞추기: 이미 놓은 벽돌이 가로세로로 줄이 맞는가를 살피듯이 가족, 국가, 교단,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한 다해야 한다. 이 공부에 힘을 얻으면 상당한 힘이 생긴다.

3. 뒀손질하기: 벽돌 쌓기가 끝났으면

는 세계에 이르기까지, 유정들의 업으로 국토의 염정(染淨)과 개인의 행불행(幸不幸)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 밖에 창조주(創造主)가 달리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했다. 그럼으로 우리는 국가나 사회나 가정이나 종단에 대하여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그것은 매사에 부처님의 말씀인 정법에 순응해야겠다는 신념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자신을 관리하고 남을 위해 봉사하되 항상 부처님의 말씀에서 이탈되지 않는가를 살피는 정진을 시작해야 한다. 다시 말해 오매일여(靡懈一如)의 정신, 즉 자나깨나 한

불교는 '자업자득'의 철학, 악업 짓지 않기 발원해야

'정법에 순응' 신념 필요... 인간 밖에 창조주 없어

도장(塗裝)을 한다든가 청소를 한다든가 나아가서는 품사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회향(回向)을 해야 한다. 이 회향이란 잘 끝낸다는 뜻이니, 주변에서 좋은 일을 찾아 남모르게 도와주는 선행(善行)을 쌓아야 한다.

하사비군(何事非君)

내가 작년 7월부터 이 난(欄)을 맡아 글을 올리기 시작하여 어언 20회가 되었다. 이제 마지막 인사말씀을 쓰기에 이르러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모두가 이미 불법(佛敎)을 행운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봉지(奉持)할 것이며, 교단의 앞날을 위해 나도 응분(應分)의 보답을 해야 되겠다고 발원해 주시기 바란다.

그간 부처님의 말씀은 인간 스스로가 그 말씀에 따라 스스로가 달라져야 운명도 바뀐다는 점을 누구도 강조했다. 다시 말해 철저히 자업자득의 철학이 불교라는 것이다. 이미 지은 악업은 참회하여 녹이고, 새로 만난 악연은 지속시키지 말고, 앞으로 생길 악연은 미연에 말리하여 악업을 보태지 않으면 복은 저절로 온다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했다.

개인이 그렇듯이 단체나 국가나 내지

결같은 마음으로 정진하는 수행인이 되어야 한다. 망설이고 기회를 살피면 이미 틀렸다.

하사비군(何事非君)이란 고어(古語)가 있다. 이는 고대 중국의 탕왕(湯王)이 혁명을 일으키자 백성들이 한결같이 "어찌 그릇된 임금(桀)을 삼기겠는가." 하면서 모두 걸왕(桀王)을 버리고 귀부(歸附)했다는 날 말이다. 국치(國恥) 때, 어느 친일(親日)대신(大臣)은 문건(文件)에 이렇게 사인하고, 반일측(反日側) 대신들에게는 고전(古典) 그대로가 자기의 뜻이었다고 설명하고, 친일측(親日側) 대신들에게는 "어느 쪽을 섬긴들 임금이 아니겠느냐"는 뜻이었다 하여 양쪽을 모두 안시(安視)했다가 표결(表決) 때인 친일(親日) 쪽으로 손을 들어 나라를 망치게 하기까지 하였으니, 이는 정견이 없는 이가 양다리걸치기처럼을 한다면 자신도 망치고 나라도 망친다는 하나의 교훈이다.

우리들의 신심(信心)에도 이런 요소는 없는지 경계해야 할 일이다. 이 연재에 애정을 가지고 끝까지 함께 해 주신 독자님들에게 감사하고, 이 인연으로 함께 정토에 태어날 연(緣)이 이루어졌으면 더욱 좋겠다는 염원이다. 다 같이 성불합시다.

목숨 걸고 간 인도에서 가져 온 것들

'동아시아 구법승과 인도의 불교유적' 불교문화의 전래과정 총망라

불교가 처음 전래된 이후 중국 사람들에게 인도는 어떤 곳이었을까? 적어도 당시 스님들에게 인도는 부처님의 발자취가 선명한 땅, 무궁한 가르침의 기록(경전)이 있는 곳으로 동경의 대상이었을 것이다. 삼장법사 현장과 법현 의정 그리고 신라 스님 혜초는 '동경의 땅' 인도를 직접 순례했다. 귀국 후에는 역경작업을 했고 그 결과 불교의 동점(東漸)에 가속이 붙었다.

기록으로 전하는 구법승의 수는 170여명이고 이름을 알 수 없는 경우는 700여명이나 된다. 이 유학과 엘리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타클라마칸 사막을 넘고 툽탄 산맥과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네팔 등의 척박한 지대를 거쳐 인도 땅을 밟았다. 살아 돌아올 확률이 10%에 지나지 않았다. 그래도 꾸준히 떠났다. 구법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여행이었다.

구법승을 키워드로 하는 연구는 그다지 활발하지 못한 상황인데 <동아시아 구법승과 인도의 불교유적>은 그 다짐들로 부족함이 없다. 10여명의 연구자들이 6년 여에 걸쳐 600여권의 문헌자료를 검토하고 3차례의 현장답사를 하는 공력이 담겼다.

인도로 간 구법승들이 남긴 기록과 그들에 관한 문헌 자료의 분석 정리, 구법승들의 여행로에 전하는 오늘날의 유적과 유물 답사, 그들의 문헌 및 각종 자료들을 불교사, 불교미술사적 시각으로 정리한 도표 등이 책의 중심을 이룬다.

이주형 책임편집 | 사회평론 펴냄 | 4만원



임연태 기자



구법승도. 국립중앙 박물관 소장



현각스님

'달' 보는 지혜 일깨우는 '손가락'

깨침의 삶을 열어주는 선 수행은 언어를 부정한다. 말에 걸려 본질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는데 말이 없을 수 없다. 깨진 사람끼리는 말이 필요 없지만 그렇기 못한 사람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말해야 하고 문자로 남겨야 한다.

그래서 말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 봐서는 안 된다고 한다. <벽암록>과 <무문관>은 달을 가리키는 대표적 선의 텍스트다. 거기 일일이 맺힌 이야기들은 무엇이 담고 무엇이 손가락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한다. 그럼에도 손가락과 달을 분간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중생심을 염려해 밝은 빛으로 되비추는 등산본이 필요

하다.

현각 스님(동국대 교수) <벽암록>과 <무문관>에서 33개의 달을 골라냈다. 그리고 그 달의 '진가'를 자상하게 풀이했다. 현대인들이 지난한 삶을 헤쳐 나가는 '단소'가 되길 바라는 스님의 마음이 행간에 '달빛'처럼 흐른다.



날마다 좋은날
현각 스님 지음
시공사 펴냄
1만1000원

산청의 사람과 향기를 그리다



산청에서 띄우는 그림편지

이호신 지음
뜨란 펴냄
1만5000원

남명 조식 선생의 카랑카랑한 목소리, 성철 스님의 호랑이 같은 활구, 문익점 선생의 유적지, 이름 불의 대화향기, 금강송의 바람소리...

지리산 천왕봉 아래 펼쳐진 유서 깊은 고장 산청에서 한국화가 이호신 화백이 만나는 진귀한 보배들이다. 이호신 화백은 이 보배들을 화첩에 담기위해 틀만 나면 산청으로 달려갔다. 절과 마을과 산과 사람 그리고 소박한 농군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들. 한 번 보고 그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에.

산청에 대한 이호신 화백의 사유는 깊고 그윽하여 이 땅의 역사와 우리 조상들의 호흡을 미세하게 머금고 있다.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된 산청은 '물외물



매화를 스케치하는 이호신 화백

외'의 기표들이다. 풍경을 만나면 풍경을 그리고 사람을 만나면 사람을 그리지만 그 속에는 역사가 있고 사랑이 있고 가르침이 있다. 그림으로도 충분하데 굳이 글을 쓴 이유는 사람마다 눈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겠지만, 그림과 글로 묶어진 이호신화백의 '산청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떠나 있다.

임연태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일기일회	법정	문학의 숲
2	안타까이 세상에 없을 당산들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3	세이븐 소년 존자(七少年)	월호	운주사
4	법륜 스님의 죽은죽실	법륜	정토
5	아름다운 마무리	법정	문학의 숲
6	깊고 깊은 연꽃 가르침	해국	시유수
7	쉬고 또 쉬고	무어	새로운 사람들
8	승가의법	동주	흥원사
9	답답하면 물아나	법륜	정토
10	삼천년의 생을 다스려야 내가 만족합니다	성연	마음의 숲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www.buddhabook.co.kr
운주사 02)3672-7181~5

佛 불영TV www.불영.kr

바르고 빠른 뉴스 불영TV!
뉴스, 법문, 다큐 사부대중과 함께하는 불영TV!

불영TV는 사찰홍보, 행사, 불교 관련기업 홍보영상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인터넷방송으로서 타 채널보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한 걸음 더 다가서고자 합니다.

※ 불영TV에서 판매 중인 스님 법문 동영상 CD

- 원통스님 관세음보살보문품 동영상1세트 CD30장
- 원순스님 원각경 동영상 1세트 20장 CD
- 각성스님 능가경

주요사업 안내

- 홍보영상 제작
불영TV에서의 동영상 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로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이 빠릅니다.
- 사업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 법문 등의 동영상 제작에 드립니다.
- 프로그램 판매
불영TV 동영상 프로그램 구입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바랍니다.

문의 | 02)2236-7208 / 017-207-7208
도합 합장

생명 에너지를
건강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원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1년전통
조상의 열과 온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지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지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지죽염 125g 30,000원
알갱이 지죽염 230g 55,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마용)
기본 배송비 2,500원 (02원외상 구매시 무료배송)

※ 부산지역은 부산농협 각지점 "신도봉이 배방"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ij.co.kr

양지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철북) · 승무북, 모듬북 · 장고 · 징 · 팽과리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른니다
- 전통의 아름다운 그대로 제작 합니다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갑니다

서울매장 : 서울시 중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돌고래 슈퍼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함

사찰 · 포교당 ·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 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해봉 -

돌고래 슈퍼 에너지텍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길동 334-5 / 사무실 : 02)471-2356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m